

---

#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환경정책 동향

---

2020. 7. 10.

[기간 : 7. 6 ~ 7. 10]

 **KEITI**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
국 가 환 경 정 보 센 터

## 동향자료 요약

| 국가/국제기구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 EPA, 코로나19 관련 강제 집행 정책 8월 31일 종료(7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미국 EPA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으로 일상적인 환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'강제 집행 재량권'을 행사하는 임시 정책을 중단할 예정임. 2p</li> </ul> </li> <li>- 과학자들, 코로나19에 사용된 4차 암모늄화합물의 환경적 영향 분석 필요하다고 밝혀(7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과학적 검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독제에 4차 암모늄 화합물(quats)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함. 3p</li> </ul> </li> </ul> |
| 네팔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와 메뚜기떼, 그리고 장마철을 앞둔 네팔(7.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올해 장마로 인한 수재해는 코로나19 정점과 맞물려 네팔에 미치는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. 2p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몽골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대응, 경제협력지구 및 고체폐기물 프로젝트에 서명(7.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몽골 정부는 몽골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감소, 경제협력지구 개발을 통한 몽골의 포스트 팬데믹 회복 지원, 고형 폐기물 처리 개선의 3개 프로젝트에 대해 7월 2일 서명함. 3p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제연합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UN, 항공사의 항공 배출 계획 변경 지원(7.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관리위원회는 항공 여행 산업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서 회복될 때까지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(CORSIA) 거래에서 배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연도 변경에 합의함. 4p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코로나 관련 외신

- (미국) 미국 EPA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으로 일상적인 환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'강제 집행 재량권'을 행사하는 임시 정책을 중단할 예정이다. (7.6)
  - 이행 및 준칙 사무국(OECA, Office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Assurance)의 보고서는 "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규제를 지연시키고, 환경오염을 줄이는 임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줄었다"고 밝힘.
  - 이 임시 정책은 8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, EPA는 더 이른 시기로 당겨질 수 있다고 함.
  - EPA는 또한 "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비준수 사항에 대해 임시정책이 종료되기 전 또는 후에 사례별로 '강제 집행 재량권'을 행사할 수 있다"고 덧붙임.

☞ <https://chemicalwatch.com/131359/us-epas-covid-19-enforcement-policy-to-end-31-august>

- (미국)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독제에 4차 암모늄화합물(quats)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함.(7.8)
  - 4차 암모늄화합물은 미국 환경보호청(EPA)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사용하는 430개 소독제 제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활성성분임.
  - 미네소타 대학의 빌 아놀드가 이끄는 과학자팀은 4차 암모늄화합물의 사용 증가는 폐수처리 시스템과 환경에 도달하는 수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함.
  - 그들은 해수, 퇴적물 및 토양에 있는 유기체의 만성 독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하여 상승된 4차 암모늄화합물 수치의 영향을 이해할 것을 요구함.
  - 한 가지 우려사항은 이 물질들의 농도 증가는 미생물의 변화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.

- 연구진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(슈퍼박테리아)에 감염 증가할 수 있다고도 밝힘.

☞ <http://www.chemicalwatch.com/131523/explore-environmental-effects-of-quats-used-for-covid-19-scientists-say>

□ (네팔) 산사태와 사망사고는 장마철 초기에 발생함. 장마가 시작된 지 23일 만에 3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,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치명적임을 보여줌. 설상가상으로 네팔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메뚜기떼의 공격을 받고 있음.(7.9)

○ 네팔은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수재해에 취약함. 남부는 홍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고, 산간지역은 매년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고 있음.

- 올해 장마는 평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강우 패턴과 강도 변화(단시간 집중호우)는 최근 몇 년간 서서히 새로운 정상 (New Normal)으로 변화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임. 이는 장마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듦.

- 네팔 당국은 이번 장마철에 홍수, 산사태, 수인성 질병을 포함한 300만 건의 수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. 수재해는 6월에서 9월까지 발생하는데, 이 시기에 연간 총 강수량의 80%에 해당하는 비가 내림.

○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장마로 인한 혼란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.

☞ <http://www.kathmandupost.com/climate-environment/2020/07/06/after-covid-19-and-locust-invasion-country-braces-for-monsoon-mayhem>

□ (몽골)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몽골정부는 몽골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감소, 경제협력지구 개발을 통한 몽골의 포스트 팬데믹 회복 지원, 고형폐기물 처리 개선의 3개 프로젝트에 대해 7월 2일 서명함.(7.10)

○ ADB는 충격 대응 사회보호 프로젝트, 고형폐기물 처리 프로젝트, 경제협력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2,640만달러 차관, 200만달러 교부금 (무상원조, 일본 빈곤퇴치기금(JFPR)이 제공), 3,000천만달러 차관을 승인함.

- 고품폐기물 관리 사업은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 기술을 통해 여성 및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새로운 소득과 고용기회를 열어줄 것이고,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쓰레기 재활용과 재사용 촉진을 위한 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사업 우선 순위 대상 지역은 다르항울(Darkhan-Uul), 고비알타이(Gobi-Altai), 수흐바타르(Sukhbaatar), 우부르항가이(Uvurkhangai) 4곳임.

☞ <https://www.adb.org/news/adb-mongolia-sign-projects-covid-19-shock-response-economic-cooperation-zone-solid-waste>

□ (국제연합)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관리위원회는 항공 여행 산업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서 회복될 때까지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(CORSIA) 거래에서 배출량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연도 변경에 합의함.(7.10)

- CORSIA는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기술적 수단만으로는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시장기반 조치를 통해 배출량을 상쇄시킨다는 개념으로, 2021년에 시작될 계획임.
- 그러나 올해 국제 항공편의 배출량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항공 여행의 급감 때문에 매우 감소할 것이므로 현재의 항공 배출 체계를 따르면 항공사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납부해야 함.
-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는 바이러스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 연도로 변경하도록 요청함.
- EU의 27개 회원국은 IATA의 요청을 뒷받침했으며, 미국 또한 해당 사항을 지지한다고 밝힘. 반면, 중국, 러시아, 인도는 배출량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☞ <https://uk.reuters.com/article/us-climate-change-aviation/un-backs-changes-to-aviation-emissions-scheme-in-boost-for-airlines-idUKKBN2413MA>